

## 전쟁소설에 나타난 식민주체의 이중성 —박완서의 <나목>을 중심으로

최성실

### 국문초록

여성의 성이란 주어진 사회적인 환경에 의해서 구성되는 구성의 산물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구성주의적 시각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구성되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이다. 여성성도 일종의 이데올로기적인 허구에 불과 하다면, 이때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은 이러한 자기 지시적이고 동어 반복적인 수행적 조작이란 무엇인가를 따져보는 것과 동시에 수행되지 않는, 구성되지 않는 것으로서의 성 정체성의 의미에 대한 분석적 해석이라는 것이다. 구성주의를 넘어서 반구성주의적인 시각까지를 포함한 성 담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이유는 상징화될 수 없고, 길들여지지 않는, 다시 말하면 고착적인 이데올로기로 환원되지 않은 최종적인 버팀목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여성을 단지 전쟁, 지배 이데올로기의 희생양으로만 규정할 수없는 부분들이 분명 존재하고 있으며 그것은 여성 혹은 피지배자의 정체성은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를 내면화시키면서 동시에 동화되지 못하고 남아 있는 정체성의 잉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것은 사소한 일상을 통해서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로 환원되는 자기 동일성과는 무관하게, 구성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성 정체성이 갖는 의미와 나아가서 전시 신식민지체제 하에서 여성의 성장의 의미란 무엇인가를 심도 있게 따져 볼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동양의 신화로, 혹은 가부장적 논리의 희생양으로

도 환원하지 되지 않는 주인공 경아의 정체성은 〈나목〉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문제적인 대목이다. 왜냐하면 경아가 보여주는 정체성 형성의 과정은 타자와 길항하는 자기 동일화의 논리란 항상 이중적이고 양가적인 방식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여성의 주이상스가 가부장제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부재와 결핍의 산물이라면, 신식민지 시기 여성의 주이상스는 큰타자인 미국의 경계를 자연스럽게 넘나드는 '부재'와 '결핍'의 응결체였던 것이다. 이를 통해 경아는 큰타자를 매개로 하여 형성된 구성적인 것들을 거부하면서 비-자기 동일성의 정치성의 여성성을 형성해갔던 것이다. 그리고 이미 분열된 경아의 의식은 옥희도씨라는 결여를 안고 있는 존재와 결합을 시도하려고 하지만, 결국 자신의 결핍의 자리를 메우지는 못했던 것이다.

자신과 동일시의 대상으로 인식했던 옥희도씨와의 사랑은 자기 동일성, 통합의 환상에 불과했던 것이다. 오히려 옥희도씨가 “불우한 시절, 온 민족이 안단했던 시절”의 나목이라면 이는 신식민지 체제하에서 한국인의 정체성이란 무엇이였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확대해서 생각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식민화 되지 않은 채 잉여물로 남아 있는 비-자기 동일성의 정체성이란 PX시절 경아가 미국과 미국인에 대해서 우리와의 '차이'라고 인식했던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성장한 여성의 문제가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전략적 사유가 갖는 현실적인 응전력 때문이라고 하겠다.

• 핵심어 : 반구성주의, 비-자기 동일성, 식민주체, 주이상스

## 1. 한국전쟁과 'PX' 라는 공간

한국 전쟁 당시 발간 된 전선문학에 〈여성과 군인〉이란 글이 실렸다.<sup>1)</sup> 이 글의 요지는 전시하의 남자에게 있어서 군대란 운명이기 때문에 절대로 거부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남편이나 아들을 전장으로 보낸 여성은 이들의 운명을 긍정해야 하며, 설사 죽어 시체로 돌아오더라도 슬퍼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국가의 부름을 받아 싸우다가 죽은 이들을 눈물 없이 보내주

1) 장덕조, 〈여성과 군인〉, 『전선문학』, 5-7, 깊은샘, 1982, pp.26-27.

는 도리를 다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시 하에 여성의 임무는 죽은 자들을 위해서 장례식을 치르고 이를 통해 그들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가슴 속에 세기는 일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성도 기회가 있다면 국가를 위해서 한 목숨 받쳐야 하는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오영수는〈중군기〉에서 “슬픈지, 기쁜지, 우스운지, 도무지 얼굴에 표정이 없는” 여성, “먹으려면 먹고 가자면 걷는” 여성, 그러니까 철저히 명령에 복종하는 여성을 이르러 “장성”이 될 것이라고 한 바 있다.<sup>3)</sup> 다시 말하면 전시 하의 여성은 죽음에 대한 기억을 폭력이나 공포로서가 아니라 국가의 국민된 자로서의 표상적인 행위, 즉 국가의 부름에 기꺼이 한 목숨 바친 자에 대한 슬픔을 존경심과 애국심으로 치환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전쟁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들을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신민”으로 기억하기<sup>4)</sup>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일종의 살아남은 자들에게 죄책감을 부여하며 국가와 민족을 회상하는 방식과 맞물리면서 일상을 규제하는 상상된 이데올로기가 된다. 특히 여성에게 있어서 죽은 자들을 대신해서 가정을 꾸려가야 한다는 것에 대한 책임은 나이에 상관없이 부여되는 것이었다.<sup>5)</sup> 그러니까 “돈이 되면 무슨 짓이든 하려는 애처로운 여인네들을 가득 실은 0.5톤 트럭이 주말이면 군기지로 질주”<sup>6)</sup>했다는 것은 군대가 단순히 여성의 노동력을 필요로 했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이다. 브루스 커밍스가 한국전쟁을 언급하면서 군대 자체가 여

2) 오영수, 〈중군기〉, 『현대문학』, 1955, 6, p.91.

3) 도미야마 이치로, 임성모(역), 『전장의 기억』, 이산, 2002, p.139.

4) 전쟁시 여성에게 부여된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는 자식을 잘 키우는 일이었다. 그러므로 전쟁에 나가 있는 남편과 가계를 위해서 여성이 해야 하는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는 전장에 찾아가서 ‘씨’를 받는 일이다. 선우휘의 〈한국인〉은 전시 국민으로서의 여성이란 개인적인 성욕이나 사랑과 상관없이 가계를 이어가는 책임을 져야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씨를 받기 위해서 남편이 있는 군대까지 찾아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소설이다. 그것이 단순한 해프닝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다. (선우휘, 〈한국인〉, 『현대문학』, 1960, 11.)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최성실, 「국가주의라는 괴물과 성 정치학」, 『문학과 사회』 (2003, 여름호)를 참조하기 바란다.

5) 브루스 커밍스, 『한국현대사』, 창작과 비평사, 2001, p.423.

성의 노동력을 필요로 한 부분이 있으며 나아가서 한국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한 곳도 군대일 수 있다고 하면서 근대의 공장을 군대 조직과 비교한 맥스 베버의 예를 들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특히 남한의 군대란 미군을 상정하지 않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었으며 그들의 자본, 달러가 흘러나오는 PX란 그런 의미에서 일종의 상징적인 공간이었다.<sup>6)</sup> PX란 국내에서 거의 아무것도 생산이 되지 않을 시기에 담배, 껌, 치약 등 자질구레한 것부터 군인들이 쓰다버린 쓰레기까지 모두 상품이 되는 곳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PX 근처를 은종일 배회만 해도 밥 벌이를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전쟁 중에 민간인이 미국이란 '제국'을 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PX이었던 것이다.

전쟁 물자의 보조 공급을 통해서 부를 쌓거나 외국인들에게 전시에 귀한 서비스, 의료, 식품, 술, 섹스 등을 공급하면서 살아야 했던 삶 또한 그러한 전시 체제의 산물이었던 것이다.<sup>7)</sup> PX란 공간도 이러한 메커니즘 안에 있었다. 전시 하에 많은 젊은 여성이 청춘을 보내야 했던 PX는 한국인도 미국인도 아닌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 자신이 갖고 있는 예술적인 재능을 돈으로 치환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 그리고 어느 정도 교육 수준이 있는 중산층 여자들이 '사회', 문화적인 타자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이 공간에서 명실상부한 큰타자로 미국이라는 사회적으로 이상화된 이미지를 접할 수 있었던 것이다.<sup>8)</sup> PX라는 공간을 통해서도 전쟁이란 무엇인가를 되물어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오히려 이러한 구체적인 공간 표상에 의해서도 전시의 기억을 반추하고 일상에서의 전쟁을 '발견' 할 수 있는 것이다.<sup>9)</sup>

6) PX는 미국의 달러를 암시장으로 흘러보내는 중요한 거처였으며 여기서 나온 달러는 운 전사, 경비병, 남녀잡역부, 환전상, 양공주, 창녀들을 거쳐 수많은 사람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갔다. 브루스 커밍스, 위의 책, pp.419-423.

7) 브루스 커밍스, 위의 책, 참조.

8) 선진국으로서의 미국이란 상징적인 현실 그 자체로 큰타자의 장(場)에 속해있었던 것이다. 주은우, 「미국, 그 (큰)타자의 응시」, 『문학동네』, 2003, 가을, p.257.

특히 PX에서 생활하면서 “어떤 시기 갑자기 부쩍 어른”<sup>9)</sup>이 되어버린 여성을 통해서 전쟁과 성장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은 그러한 의미에서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것은 전쟁을 통해 집안의 가장이 되어야 했던 여성이 양공주와는 다른 차원에서 미국인, 혹은 지배국가의 이데올로기를 체험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다. 전후 가장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사회와 맞대면해야 했던 여성, 그것도 PX라는 공간에서 전쟁을 주도하고 있는 지배국의 미국인을 상대해야 했던 여성의 성장과 그 과정 속에서 형성된 정체성은 어떠한 특성을 갖는가.

## 2. 반구성주의적 시각과 성 정치학

여성의 성이란 주어진 사회적인 환경에 의해서 구성되는 구성의 산물이 라고 한다면 이러한 구성주의적 시각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구성되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이다. 여성성이란 것이 하나의 이데올로기적인 허구에 불과 하다면 이때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은 이러한 자기 지시적이고 동어 반복적인 수행적 조작이란 무엇인가를 따져보는 것과 동시에 수행되지 않는, 구성되지 않는 것으로서의 성 정체성의 의미에 대해서도 분석적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구성주의를 넘어서 반구성주의적인 시각까지를 포함한 성 담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이유는 상징화될 수 없고, 길들여지지 않는, 다시 말하면 고착적인 이데올로기로 환원되지 않은 최종적인 버팀목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기 때문이다.<sup>10)</sup>

9) 도미야마 이치로, 임성모(역), 『전장의 기억』, 이산, 2002, pp.26-31. 남편 없이 자식을 돌보기 위해서 품을 팔아야 하는 여성, 혹은 <나목>의 경아 처럼 일찍 아버지를 잃고 전쟁 때문에 오빠를 잃어버린 소녀 가장들이 다녀야 했던 일터가 PX이기도 한 것이다.

10) 본고에서 논의 대상이 되는 <나목>은 세계사(1995)에서 나온 전집 중에 제 10권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하 인용에서는 페이지 수만 표기한다.

11) 주디스 버틀러, 김운상(역), 『의미를 체현하는 육체』, 인간사랑, 2003, pp.36-38. 슬라보예 지젝, 이수련(역), 『이데올로기라는 숭고한 대상』, 인간사랑, 2002, pp.175-

사실상 여성을 단지 전쟁, 지배 이데올로기의 희생양으로만 규정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 존재하고 있으며 그것은 여성 혹은 피지배자의 정체성은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를 내면화시키면서 동시에 동화되지 못하고 남아 있는 정체성의 잉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주디스 버틀러의 말처럼 여성이나 남성의 성적 정체성이란 구성적이고, 수행적인 것이라면 정작 전략적인 부분으로 상정해야 하는 것은 그 수행, 혹은 구성되는 요인이 아닌, 수행되지 않는 것, 구성되지 않는 것에 대한 관심이 아닐까 하는 것이다. 사회적인 모순이 내면화되는 부분과 그렇지 못하고 잉여물로 남아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성장 과정을 통해 분석적으로 접근해 본다면 전쟁과 여성의 성장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여성적인 것 이면에 남아 있는 비 지기 동일성적인 측면이 무엇인가까지도 함께 논의 될 수 있을 것이다.<sup>12)</sup> 그것은 사소한 일상을 통해서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로 환원되는 자기 동일성과는 무관하게, 구성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성 정체성이 갖는 의미와 나아가서 전시 신식민지체제 하에서 여성의 성장의 의미란 무엇인가를 심도 있게 따져 볼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 3. 훼손된 모성성과 ‘개인’의 발견

〈나목〉은 6.25라는 특수한 한국적 상황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의식을 내포하고 있는 소설이다.<sup>13)</sup> 특히 1950년대 전쟁을 배경으로 한 다른 소설에

182. 참조. 이러한 ‘구성되지 않는 것’에 대한 관심은 신식민지 체제하의 여성문학을 전략적인 방식으로 논의하는 것에도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신식민지 체제하의 여성이 지배문화, 큰타자를 대하는 방식에도 구성되는 것과 동시에 ‘구성되지 않는 것’이 잉여물로 남아 있으며 이것이 엉터리 흉내내기의 중요한 의미망을 형성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12) 성장 소설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교양을 쌓아서 사회적인 인격체가 되는 문제와 동시에 어떻게 사회적인 모순을 내면화시키고 있는 가다.

비해서 <나목>은 한 여성이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성장해 가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문제적인 소설이다. <나목>의 경아에게 전쟁은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오빠의 죽음이다. 경아는 전쟁을 피해 도피처를 찾고 있던 오빠들의 은신처를 제안하였으나 불행히도 그 곳에 폭격이 떨어져 모두 죽고 만다.

이러한 오빠의 죽음은 아버지의 죽음과는 또 다른 측면에서 경아의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녀의 집안에서 오빠의 존재는 아버지와 같은 것이었다. 그러므로 어머니가 오빠들에게 쏟는 정성이란 아버지가 사라진 집안에 '아버지'를 세우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던 것이다. 전쟁은 단순히 오빠를 죽인 원인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라는 절대적인 법을 대신하는 어떤 것이 부재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그때 혼자 남은 나란 존재는 한 집안의 경제적인 가장이면서 동시에 사회적으로 독립을 해야 하는 사회인인 것이다.

여기에는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먼저, 집안에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을 가족 내의 가부장적인 질서에 실질적으로 매어있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과 동시에 사회적인 규범과 질서를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일찍 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가족 내에서 겪게 되는 아버지의 법에 내포되어 있는 가부장적인 논리에 좀더 거리를 두고 대응할 수 있었던 여건과 사회화 과정에서 겪

---

13) 장르상으로 성장소설은 근대소설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독일어의 Bildungsroman은 흔히 교양소설 또는 성장소설로 번역이 된다. 이때 교양 혹은 성장소설이란 한 인간이 겪는 영혼의 발전, 인생교양의 성취까지를 보여주고 있는 소설을 의미한다. 특히 교양소설은 젊은 시절과 순화의 기간 내지는 성취한 것을 의식하는 단계, 그리고 세계를 인정하고 자신을 세계질서 속에 편입시키는 단계 등을 거친다. 이러한 단계 설정이 중요한 것은 교양소설이라는 불려지는 일군의 소설들에서이며 그 밖의 경우에는(일반적 의미의 성장소설) 한 인물이 성장해가면서 세계의 모순을 어떻게 내면화시키는가, 그리고 그 과정상에 특징은 무엇인가의 문제가 중요한 관건이 된다. 김동중 외, 『도이치문학 용어사전』, 서울대 출판부, 2001, pp.273-277. 이보영 외, 『성장소설이란 무엇인가』, 청예원, 참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전쟁과 관련된 대표적인 한국성장소설이 <나목>인 것이다.

게 되는 사회적인 규범과 지배 이데올로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미 경아에게 아버지, 가장이란 자신을 보호해주는 울타리, 혹은 가정을 지키는 힘의 상징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것은 마치 자신을 보호하려는 양, 집안의 윗사람으로서 살아 있는 사람들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큰 집 오빠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확연하게 드러난다.

홍 제까짓 게 뭔데. 아무리 콧대를 돋우고 거만을 떨어도 누가 모를 라고. 저도 6.25 땐 도망을 쳤겠지. 우리를 그 몸서리치는 살벌과 잔혹의 지배 하에 동맹이쳐 놓고 비실비실 도망친 주제에 남아서 온갖 것을 인내하고 감수한 끝에 아직도 후유증을 앓는 우리를 아주 불쌍한 듯이 보다니, 아니꼽게. 별꼴이야 별꼴이야. 저까짓 게 뭐라고. 여자와 망령밖에 없는 집이라고 업신여기고(138)

그렇기 때문에 경아는 가족 내의 가부장적인 이데올로기, 그 자체가 아니라 이에 얽매어 있는 어머니(모성성)와 싸운다. 전쟁 중에 아들을 잃은 어머니는 그나마 있었던 삶의 의욕도 모두 상실한다. 해가 바뀔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머리 속에는 아들의 죽음에 대한 기억이 지워지지 않은 상흔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어머니에게 하루 하루는 고통의 연속인 것이다. 설날 만두리도 하자는 경아의 말에 어머니는 “설은 무슨 놈의 설이누, 갈잡게시리.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구—”라고 대꾸한다. 어머니의 의식 속에 오빠가 죽은 집에서 사실상 살아 있는 사람이란 아무도 없는 것이다. “엄마, 우린 아직은 살아 있어요. 살아 있는 건 변화하게 마련 아녜요”라고 소리를 질러보지만 엄마 눈의 초점은 변하지를 않는다. 어머니에게 전쟁으로 인하여 죽은 자식에 대한 기억은 온전히 신체에 각인되어 삶의 모든 것을 규정하는 망각되지 않는 과거인 것이다. 아들에 대한 기억에 사로 잡혀 딸을 염두에도 두지 않는 어머니는 경아에게 커다란 상처를 주는 대상일 뿐인 것이다.

그러나 경아에게 있어 과거의 기억이란 어머니와는 다른 것이다. 그것은 자신의 동일성이라는 신화를 끝까지 고집하면서 한 가정의 기둥으로서의



아들을 상정하고 이로부터 놓여나지 못하는 어머니를 경멸하는 그녀의 태도에서 잘 드러난다. 그녀는 직접적인 아버지의 실체와 부딪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망령인 어머니의 기억과 싸워야 했으며 오빠의 죽음을 좀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이를 극복해야 했던 것이다. 그런 경아와 어머니는 “애정이라든가 의무로 묶여 있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딸 노릇이 아니라 어떻게 한 인간, ‘개인’으로서 전쟁의 참담함을 이겨내고서 살아 남을 것인가의 문제였다. 오빠의 기억 속에서 헤어 나지 못하고 돈을 벌어오는 딸의 밥상에 김치국만 올려주는 어머니, 따뜻한 미소 한번 보내주지 않는 어머니에 대한 상념은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경아가 보여주는 태도에서 극대화된다.<sup>14)</sup>

이처럼 숭고하지 않은, 다시 말하면 더럽혀진 모성성은 가족이라는, 가정이라는 환상으로부터의 ‘분리’를 가져다 준다. 더럽혀진 모성성에 대한 상기는 여성/남성의 이분법적인 논리, 가부장적 질서에 대한 혐오를 개인화 하면서 점차 ‘개인’, ‘고유한 조직화’의 의미작용의 근간이 된다.<sup>15)</sup> 다시 말하면 “그렇지, 나는 결코 나를 가엾게 내버려둘 수는 없지”라고 다짐하게 만드는 것들은 그러한 시련들인 것이다. 모성성의 신화에 간혀 있지도, 이를 답습하지도 않는 경아의 태도는 우연한 오빠의 죽음을 자신에게 전가시키면서 혐오감을 키워 가는 어머니로 인해 극으로 치닫는다.

이처럼 전쟁으로 인해서 와해되어 가는 가족사에 직감하고 있는 젊은 세대에게 전쟁은 “혈연이나 인습의 굴레를 부수기에 더욱 대담하고 자기의 문제를 자기가 책임지기에 용감하고 성실해지는 것”(133)을 다짐하게 하며 어떤 누구도 자신들을 지켜줄 수 없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계기가 된다. 경아가 PX에서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도 이러한 의지의 소산이었던 것이다.

14) 경아는 어머니의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 한번도 울지 않는다. 단지 조금 눈물을 보였다는 자신의 상가에 와서 “기름지게” 곡성을 하고 있는 태수의 형수님 때문이었다. “나도 그런 그녀의 선창으로 몇 번 눈시울을 적셨지만 순전히 그녀에 곡의 효과이지 어머니의 죽음과는 무관한 눈물이었다.” p.262

15) 줄리아 크리스테바, 『공포의 권력』, pp.134-146.

#### 4. 동방에의지국의 여성라는 호명과 식민주체의 이중성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쟁 중에 PX라는 공간은 물건을 사고 파는 관계로 미군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공간이었다. 그 공간에서 경아가 경험한 것은 국제 결혼이나 미국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는 여성이라든가 양놈에게 핍박을 받는 여성이 아니다. 오히려 PX에서 경아는 “홍 결혼? 난 국제결혼에 허겁지겁 할 뜻내기 같보시절은 벌써 지난지 오래야. 미국 가서 업신 받고 살 바본 줄 알아? 어렵도 없지. 난 여기서 돈 벌어서 남을 싹 컷 업신여기며 살고 싶단 말이야. 난 돈 이면 다야”라고 말하는 여성, 그리고 “부자 나라 놈들이니까 한번 그렇게 거드러져려보는 거겠지. 원체 기분 파들이니까”라고 말하는 여성, 그리니까 소위 말하는 양놈에게 주눅들어 있거나 절절 매는 여성이 아니라는 것이다. 물건을 사고 파는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은 고객과 판매자의 논리이지 결코 지배자/피지배자의 논리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때 중요한 것은 미국이란 나라가 한국보다 더 나은 점이 있다면 정신적인 것, 문화적인 것의 우월함이 아니라 ‘자본’, ‘부’ 때문인 것이란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키들이 댄스파티를 하는 동안 “문자 그대로의 아귀다툼을 흥미진진하게 관람하고 있는” 동안 태수는 분노를 느끼고 “창피함”을 느끼지만, 경아는 오히려 “저들은 저들대로 좋아하게 내버려두면 되잖아요. 그들이 우리의 국적 같은 걸 들추어내니까 속상한 거예요. 실상은 굶주린 자와 포만한 자의 차이뿐인데, 저들도 우리처럼 전쟁을 겪고 오락과 먹을 것에 오래 굶주리면 우리보다 몇 배 추태를 부릴걸요. 만일 우리도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처지라면 저치들보다 몇 십 배 거드름을 피웠을 테구”라고 응수한다.

경아에게 미국이란 거대한 강대국이기에 때문에 부러움의 대상이거나 우리의 지배를 정당화할 만큼의 어떤 명분이 있는 나라가 아니다. 단지 자본을 앞세워 남의 나라에 와서 전쟁을 하고 있는 제3자에 불과한 것이다. 미국인이란 단지 우리 사이에 끼여든 이물질일 뿐인 것이다. 경아는 그것을

혐오스러움으로 치환하거나 증오로 환치시키지 않는다. 경아에게 그들은 단지 '차이'가 있는 인간들일 뿐이지 전혀 '다른' 부류의 인간은 아닌 것이다. 서구적 타자를 '차이'로서 인지하는 그녀는 파티에서도 당당하게 "우리도 춤을 추고 실컷 추태를 부릅시다. 딴사람들과 다른 척 하는 거 제발 그만뒤요. 네?"라고 반문한다. 파티를 열었는데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혹은 저들에게 물건을 파는 판매원이라는 이유로 고객과 함께 어울리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들과 우리의 차이가 있다면 풍족한 부를 소유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그녀의 생각과 전혀 관계없이 PX에서 만난 미군병사는 "그 싸구려 여자들을 5달러라도 오케이. 1달러도 오케이. 세계에서 가장 싸구려 섹스를 가진 여자들. 그렇지만 사고 보면 2달러도 아깝지. 세상에 그렇게 운치 없이 섹스를 거래하는 계집들이 이 나라 밖에 또 있을까."(181) "바이 바이 동방예의지국"라고 빈정거린다. 그 미군에게는 한국여성이란 제3세계 여성으로 무지하고 가난하고 덜 교육 받은 인간일 뿐이다. 또한 그녀들은 전통에 묶여 있고, 가사에 길들여져 있고, 가족 지향적인 존재일 뿐이며 이에 비해서 자신이 속해 있는 서구 여성이란 교육받고, 모던하며 자신들의 신체와 성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존재라고 생각하는 특권화 의식이 있었던 것이다.<sup>16)</sup>

그러한 이유로, 그는 사랑한다는 말을 남발하면서 여기저기 자신의 고국에 있는 여자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유희하는 자유로움을 오히려 굉장한 자긍심으로 여기고 경아에게 "동방예의지국에 사는—"이란 식의 야유를 자연

16) 릴라 간디, 이영옥(역), 『포스트식민주의란 무엇인가』, 현실문화연구, 2000, p.115. 이는 여성을 수동적인 대상으로 상정하고 처녀와 창녀의 이분법으로 나누거나 사회적으로 능력이 없는 대상, 사적인 공간에 갇혀 있는 소극적인 인물로 규정해 버리는 식민지 담론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지배적인 것은 일반적으로 성적 용어로 의미화되며 남성적인 것과 연결되었다. 사회적인 것, 권력적인 것인 지배자의 속성으로 성적 불가능, 거세, 매춘 등의 용어로 피지배자의 속성을 규정하는 것은 오랜 역사적/구성적 산물이다. 가야트리 스피박 외, 유제분(역), 『탈식민페미니즘과 탈식민페미니스트』, 현대미학사, 2002, pp.150-171, 참조.

스럽게, 아무런 거리낌없이 했던 것이다. 그런 병사에게 경아가 자신은 “창부도 아니요 동방예의지국도 아니”라고 소리치고 싶었던 것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그녀의 의식 속에는 창녀, 혹은 순결한 양가집 규수의 이분법적 사유, 다시 말하면 사회적으로 정의된 규범적인 이념태에 대한 강박증이 없기 때문이다.

그녀가 그 미군과 하룻 밤을 보내기로 마음을 먹은 것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지지 않는 현실에 대한 경멸도 있었지만 동시에 창부도 동방예의지국의 여성도 아닌 자신의 성적 욕구 때문이기도 하였다. 그러니까 “단순한 배설이 아닌 이국에서의 정사쯤을. 내가 구테여 그의 정사의 피해자일 필요가 있을까. 공범자가 될 수도 있지 않은가. 그와 멋진 정사를 공모해야겠다. 그와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고 그의 푸른 눈을 보며 음익을 들을 수 있으면 더욱 좋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아무런 피해의식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미국인 조가 그녀를 선택하여 돈을 주고 성적인 욕망을 해결하겠다고 덤비는 것(창녀), 혹은 그녀 스스로 양가집 규수를 자칭하면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단정하는 것(동방예의지국)과는 엄연히 다른 것이다. 양가집 규수로도 창녀로도 규정할 수 없는 것이 그녀의 정체성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그녀의 태도는 모호한, 양가적인 정체성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인이 한국인을 어떻게 상상하는가, 다시 말하면 상상된 한국인(여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의미망으로 확산된다. 사실상 동양적인 여성, 동방예의지국의 여성이란 지극히 현실과는 다른 차원에서 상상된 표상이며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김둥이의 품에 안기면서도 한국인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다이아나 김처럼 진짜와 가짜의 모습이 뒤섞여 있는, 어떤 것이 진정한 그녀의 정체성인지 알 수가 없는 능숙한 ‘홍내내기’는 중요한 문학사적 의미를 갖는 것이다. 이는 그들이 말하는 소위 동방예의지국에 살고 있는 여성의 모습이란 다중적이고 모호한 것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요인이 된다.<sup>17)</sup>

그녀는 여러 벌의 옷을 바뀔입듯이 여러 벌의 자기를 갖고 있어 수시로 바뀌 입고 있다. 구미호처럼 능란하게. 어떤 것이 여벌의 다이아나고 어떤 것이 진짜 다이아나일까? 다이아나란 이름도 실은 여벌일 게다. 진짜는 복순이나 순득이쯤 일 게다. 악착같이 달려 집착하고 껌둥이에게 안기고 연년생으로 잘 생긴 아이를 낳고, 그 아이의 아버지의 아내이기도 하고, 옥희도 씨를 모욕한 게 다이아나 김이었으면서도 그중 몇 개는 가짜임에 틀림없고, 그녀 자신은 아마 어머니인 자기 배역이 가장 마음에 들어 그게 진짜로 보이고 싶은 눈치지만 나는 절대 그렇게 속아주진 않을 걸 하고 부질없이 마음을 도사려 먹었다.(206)

경아가 말하는 다이아나 김의 다중적인 모습은 1950년대 양공주라고 지칭되는 여성의 모습, 예컨대 미군병사에게 버림을 받고 그를 기다리면서 세월을 한탄하거나 소파수술을 받으려고 산부인과를 들락거리는 여성의 전형성과는 거리가 있다. 다이아나 김이 미군병사를 대하는 태도는 지극히 계산적이며 현실적이다. 그녀가 미군 병사 보브에게서 원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진짜 다이반지”일 뿐이며 이에 대한 반응도 “부자 나라 놈들이니까 한번 그렇게 거드럭거려보는 거겠지. 원체 기분파들이니까”라고 할 만큼 심드렁하다. 다이아나 김의 정체성이란 아이들을 키우는 어머니이면서 동시에 물질적인 부를 즐기는 대상으로서 남자를 대하는 요부이며 양놈들을 대상으로 능숙하게 물건을 파는 상술가 등 어떤 일부분으로 규정할 수 없는 분열적인 것이다.<sup>17)</sup>

17) 그녀는 미군 병사의 빙정거리는 말을 따라 하면서 그 의미를 자기 식으로 해석한다. 스스로 “홍내내기”라고 한 그녀의 행위가 흥미로운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18) 박완서 소설에 등장하는 양공주의 이미지는 피해자, 혹은 피수탈자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다. 그들은 전쟁의 피해의식을 내면화시키면서 자학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박완서의 자전소설 〈그 가을의 사흘 동안〉에 등장하는 인물도 포주로 자신을 고용하고 있는 엄마를 미워하기보다는 당당하게 “선생님, 그래도 우리 엄마만한 엄마도 드물어요.”라고 말하는 양공주. 소파 수술을 하러 와서도 “극도로 세련되어 일종의 직업미 같은 것 느끼게 하”(177)는 양공주가 등장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인물들은 미군을 대상으로 하여 술 장사를 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여성일 뿐이라는 표상적인 의미를 더욱 강화시킨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양공주라는 비하적인 용어로 이 여성들을 지칭하

다이아나 김과 마찬가지로 경아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도 수많은 '나' 일 뿐이다. 단지 그녀는 조와 함께 침대 위에서 뒹굴면서 "수많은 군더더기의 나를 벗기를 원하고 있었다. 때로는 나를 짓고, 때로는 내 뒤에 숨고 내 뜻과는 상관없이 제 나름으로 요변하는 여러 개의 나를 벗기를 갈망하고 있는 것이다. …그를 통해 나는 내 영육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와 멋진 하룻밤을 보내지 못하고 뛰쳐나온 것은 동방예의지국의 여성이기 때문에, 혹은 미군 병사에게 돈을 받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신이 미국 병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 금지된 욕망, 불륜의 감정으로 시작된 경아의 사랑은 단순히 오빠와 아버지의 대리자에 대한 보상적인 심리와 같은 단순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봄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서 있는 나목, 전쟁의 피폐함 속에서 자신의 욕망을 마음껏 펼쳐보지 못한 채 주눅들어 있고 움츠리고 있는 자신의 결핍, 바로 그 자체였던 것이다.

## 5. 모호한 정체성, 비-자기-동일적인 것(the non-self-identical)의 정치성

주체들은 각자의 상대방에게 공통된 결여를 보낸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자는 남자의 보완물이 아니라 그의 결여를 구현하는 것이다. "선생님 때문이 아니요, 전쟁 때문이에요. 이 미친 전쟁이 머지 않아 우리 둘을 차례차례 죽일 테니까요. 아무도 그 미친 손으로 부터 놓여날 수는 없을걸요"라고 하면서 옥희도 씨의 사랑을 갈구하지만 그 결과가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녀가 옥희도씨를 사랑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기존에 정해진 도덕적인 관습과 인습의 테두리에서 벗어나고 싶어하

---

는 것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술 파는 데 종사하면서 육체적 순결성의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로운 직업 여성일 뿐이기 때문이다. 박완서, 〈그 가을의 사흘동안〉, 박완서 문학앨범, 같은 책, 참조.

는 욕망 때문이기도 하였다. 이는 지난 과거 기억에 매어 자신을 서서히 죽게 한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기도 한 것이며 큰집이라는 명분 하에 자신을 조신한 여성으로 키우고 싶어했던 집안 어른들에 대한 반발이기도 했던 것이다. 또한 자신을 가리키면서 동방예의지국의 수동적이고 답답한 여자인 양 바라보았던 PX 미군의 시선에 대한 반발이기도 하였던 것이다.

결국 옥희도씨는 상식적인 사랑 밖에 있는 불륜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모든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롭고 싶었던 경아의 '결핍'이기도 하였던 것이다. 도덕과 같은 사회적인 규범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그녀의 욕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옥희도씨에 대한 집착도 심해진다. 옥희도씨야말로 한국이라는 사회 전체에서 본다면 사회 부적응자요, 가정적인 차원에서는 무능력한 가장이며 경아와의 관계에서는 불륜의 가능성을 담지하고 있는 경계선의 인물이기 때문이다. 경아가 “전쟁 때문이에요. 이 미친 전쟁이 머지 않아 우리들을 차례로 죽일 테니까요. 아무도 그 미친 손으로부터 놓여 날 수는 없을 걸요.”라고 말하면서 옥희도씨를 갈구하는 것과 옥희도씨가 “사람이고 싶어. 내가 사람이라는 확인을 하고 싶어”라고 소리치는 것에는 서로 결핍을 확인하는 중요한 의미가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경아에게 옥희도씨란 전쟁의 불안과 피해함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인물이었으며 그녀에게 그런 옥희도씨의 모습은 주어진 상황 속에 도저히 적용할 수 없는,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의 틀로 환원되지 않는 ‘잉여물’로 남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태수와 결혼을 하게 된 것은 태수의 끈질긴 구애와 주변적인 상황 때문이었다. 태수와 결혼은 현실적인 부분들을 받아들이고 모순을 내면화하게 되는 동기가 된다. 경아가 어떻게 할 수 없었던 팔루스적인 통제 하에 있는 어떤 사회적인 협약이란 바로 결혼이었던 것이다.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하는 현실적인 상황은 그녀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극적으로 흘러간다. 아버지의 이름을 딴 이름들(patronymic names) 팔루스의 통제 하에 있는 영역,<sup>19)</sup> 경아에게 결혼은 그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결혼할 생각이 없었던 태식이와의 결혼은

본인의 의사보다는 만들어진 상황에 수긍할 수밖에 없었던 결과였다. 그것은 경아가 어머니 상을 당한 직후에 극단적으로 진행이 된다. 혼사에 대한 자신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되기도 전에 상가 집에 들어선 태식이 집안의 식구들은 그녀를 이미 자기 집안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에그 망측해라. 누가 들으면 어쩔라고—나한테 형님이라고 하는 거라우. 알아들었수? —그녀는 훌쩍이며 어머니의 부연 치맛자락에 눈물인지 콧물인지를 닦았다. 또 가끔, 상가에서 곡성이 안 나면 남이 흥본다면서 아이고 아이고 구성지게 곡까지”(262) 하고 나중에는 “코믹하게만 들리던 ‘사돈 어른’ ‘사돈댁’의 호칭이 엄연히 나를 매개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결국 경아는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어쩔 수없이 결혼을 하지만 잉여물로 남아 있는 옥희도씨를 절대로 잊지 않는다. 옥희도씨는 남편을 타인이라고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또한 어떤 부분에서는 그녀의 완전한 자기 정체성, 자기 동일성을 일깨워주는 대상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조건 속에서 자기의 완전한 정체성을 확인할 수 없음을 예시하고 있는 ‘응시’의 매개체이기 때문인 것이다. 그는 여전히 그녀 ‘자신’과 섞여 있는 타자로 비-자기 동일성의 속성을 일깨워주는 존재일 뿐이며 자기 동일성으로 환원되지 않는 구멍, 결핍적인 존재였던 것이다. 결혼을 통해서 아내라는 이름을 얻었고 아이를 낳아 어머니라는 이름을 얻었지만 그 중에 어떤 이름으로도 자신의 존재,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할 수 없음이란 또 다른 측면에서 여성의 정체성이란 사회적인 것들, 구성적인 것들로 환원되지 않는 모호하고 양가적인 특성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측면에서 문제적인 것이다.

19) 주디스 버틀러, 위의 책, p.287.



## 6. 결론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동양의 신화로, 혹은 가부장적 논리의 희생양으로도 환원하지 되지 않는 주인공 경아의 자기 정체성은 욕망의 작용기제들을 드러내는 동시에 은폐시키기도 한다. 그리고 이는 자기 동일화의 교차과정 속에서 더욱 정교화된다. 이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이를 통해서 타자와 길항하는 자기 동일화의 논리란 항상 이중적이고 양가적인 방식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성의 주이상스가 가부장제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공간으로 부재와 결핍의 산물이라면, 신식민지 시기 여성의 주이상스는 큰타자인 미국의 경계를 자연스럽게 넘나드는 '부재'와 '결핍'의 응결체였던 것이다. 이를 통해 경아는 큰타자를 매개로 하여 형성된 구성적인 것들을 거부하면서 비-자기 동일성의 정치성의 여성성을 형성해갔던 것이다. 그리고 이미 분열된 경아의 의식은 옥희도씨라는 결여를 안고 있는 존재와 결합을 시도하려고 하지만, 결국 자신의 결핍의 자리를 메우지는 못했던 것이다. 자신과 동일시의 대상으로 인식했던 옥희도씨와의 사랑은 자기 동일성, 통합의 환상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오히려 옥희도씨가 “불우한 시절, 온 민족이 암담했던 시절”의 나목이라면 이는 신식민지 체제하에서 한국인의 정체성이란 무엇이였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확대해서 생각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식민화 되지 않은 채 잉여물로 남아 있는 비-자기 동일성의 정체성이란 PX시절 경아가 미국과 미국인에 대해서 우리와의 '차이'라고 인식했던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성장한 여성의 문제가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전략적 사유가 갖는 현실적인 응전력 때문이라고 하겠다.

Abstract

Rereading Pak Wan-so's *The Naked Tree* :  
Beyond the constructionism

choe, sung sil

If the femininity is said to be the product of construction, formed by given social conditions, the attention to 'the non-constructed' is important as well as this constructionist point of view. If the femininity is an only ideological fiction, the following is surely required ; the analytical interpretation on the meaning of sexual identity as the non-constructed and the non-performed as well as the analysis on the performative operation that is self-referring and repetitive. The reason why arguments about the sexuality discourse including dis-constructionism beyond the constructionism is needed is that the argument on the final prop which cannot be symbolized, tamed and reduced to the ideology is important.

In fact, we cannot regard the woman as the victim of war and dominant ideology, which is closely related with the fact that the identity of woman or the governed internalizes the dominant ideology and never abandons the unidentified and left surplus of identity at the same time. As Judith Butler says, if the sexual identities of the woman and the man are constructive and performative, what must be presented as a strategy is but the interest on the non-performative and non-constructed, not the factor of performance and construction. Through the process of growth, if we

approach analytically to the parts where social conflicts are internalized or the surplus is left, we can discuss not only the development of the war and the woman but the disidentity beyond the feminine constructed socially. It is significant because it can be the point of departure where the meaning of sexual identity which is not constructed regardless of the self identity reduced to the dominant ideology through everyday life and the meaning of growth of the woman under the neocolonial governance during the war can be profoundly remarked.

*The Naked Tree* is a novel that implies various issues, related with the specific Korean situation or the Korean War. Especially, in comparison with another 1950's novels that take the war as their settings. *The Naked Tree* is an arguable novel because it reveals how a woman 'grows', going through the war. In this novel, the problematic issue of how the subject is formed in the process of growth is finely depicted in the special background. The subjects, in deed, give the common lack to their counterparts. The woman is not the complement for the man but the embodiment of his lack in this point of view. She says, "It's not because of you. Because of the war. This crazy war kill two of us in turn after a while. None can be freed from the crazy hand", eager for the love of Ock Hui-do, but it is not simple like that. In a sense, that she loves Ock Hui-do is also for the desire to escape from the boundaries of traditional moral conventions. This is also the regret at the mother who was obsessed with the past memories and made her die slowly and the disobedience to the family members who wanted to make her a moderate woman under the name of the main branch of family. In addition, it is the resistance against the eye of an American soldier of PX, who pointed to her and viewed her as if

she were a passive woman of the *East country of courtesy*.

Therefore, Ock Hui-do was the object of a liaison outside the commonsense love and at the same time, the lack of Kyung-a who was willing to be freed from all the dominant ideologies. The stronger her desire to escape from the social norms like the morality is, the severer her obsession with Ock Hui-do is. He is a dropout in the entire Korean society, the powerless leader in the house, the marginal man who has the possibilities of liaison in relations with Kyung-a. Eager for Ock Hui-do, Kyung-a says "Because of the war. This crazy war kill us in turn soon, None can be freed from this crazy hand", and Ock Hui-do cries out, "I want to be a human being. I want to make sure that I am a human being". These scenes imply that they mutually confirm their lack. For Kyung-a, Ock Hui-do is a character who has the anxiety and the impoverishment of war thoroughly and his behaviors make some surplus, which cannot be adjusted to the given circumstances and reduced to the frame of the dominant ideology.

In spite of this, she came to marry Tae-su because of his continual courtship and the surroundings. The marriage becomes the motivation that makes her accept the reality and internalize the conflicts. The marriage was the very social agreement that was under the control of the phallus so Kyung-a cannot handle. The real situation which makes her marry someone she does not love grows dramatic. The marriage is to enter the field under the control of the phallus and the field of patronymic names for her. The marriage with Tae-su was rather the result of acceptance than her will. Kyung-a adjusts to the given reality and can't help marrying him, however, she never forgets Ock Hui-do, who is left as the surplus after the marriage. Like she feels that her husband is the

other, Ock Hui-do is not the object evoking her complete identity but the existence evoking the property of disidentity, as the other that intermingles with *herself*. Even though she gets the name of wife through the marriage and the name of mother through the delivery, she cannot define her own identity and her existence by means of any name. This means that the identity of a woman exists as the obscurity and ambiguity that is not reduced to the social and the constructive.

Moreover, as she says, if Ock Hui-do is the naked tree of “the desperate period, the period when all the people were in the darkness”, it can be widely rethought as the question of what the Korean identity is under the neocolonial governance. What is the identity that is not colonized and left as the surplus? Maybe it is internalized in the things that Kyong-a thought of as the *differences*, of America and Americans. (Her) identity that is not reduced to the oriental myth of *the East country of courtesy*, or to the logic of patriarchy is elaborated in the crossing process of the identity, which makes and conceals the operational ways of the desire at the same time. And the reason why this crossing process is important is that through this, the profound remark is possible; the remark on the fact that the logic of identification related with the other is always dual and ambivalent. This realistic power of response that this strategic cogitation has requires the problem of a woman who grew through the Korean War to be examined in detail.

**key word** : non-construction, dis-constructionism, disidentity, ambiguity, differences.